

<제 641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해남군청에 1천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해남군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해남군 교육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금호타이어

◆ 닛산 패스파인더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22일 닛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패스파인더(Pathfinder)' 5세대 버전에 OE(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패스파인더는 1985년 생산을 시작한 중대형 SUV로, 미국 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 받으며 닛산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견인하고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높여오고 있다.

5세대 버전 '크루젠(CRUGEN) HP71'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이다.

## 기아 광주공장

◆ 스포티지 이어 '2022 셀토스' 출시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송호성, 최준영)은 지난 22일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2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셀토스는 기아 대표 소형 SUV로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한 The 2022 셀토스는 1열 USB 단자를 기본화하고 기존 상위 트림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고객 선호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지사회장 이·취임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22일 지사 체육관(앙리뒤낭홀)에서 '제30대 박흥석 지사회장 이임식 및 제31대 허정 지사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개식 축하공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제30대 박흥석 지사회장 이임사 ▲허정 지사회장 선출 경과보고 및 약력소개 ▲광주전남지사 사기 이양 ▲취임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임기동안 나눔과 봉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SNS 등 새로운 모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적십자사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도주의적 정신이 광주·전남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총 박성수 자문위원장 기고\_전남일보 7.16일자>

## 고사리손의 정성이 담긴 GGM을 보며

기고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  
GGM 경영자문위원장



놀랍게도 불과 1년 4개월 만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완공돼 위용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싶다. 작금의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위의 우려를 말끔하게 떨쳐 버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광주형 일자리를 마침내 만들어 낸 것.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적입니다"고 지역의 경영자총협회 대표가 말한 바 있다.

며칠 전이다. 경영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GGM을 방문했다가 생산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첫차가 출하되는 9월15일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한눈에 들어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온 국민의 시선을 받아 온 GGM은 이제 대망의 첫 작품이 선보이는 그날을 기다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사리손의 효능을 아는가”

그날 GGM 대표는 위원들에게 고사리손의 정성을 빚대어 설명했는데 참으

로 와닿는 대목이어서 그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맴돌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의 손을 비유해서 곧잘 고사리손이라고 말하곤 한다. 손목이 가늘고 주먹을 쥐 모양이 흡사고 사리 같아 즐겨 부르게 됐다고 한다. GGM의 새내기 직원들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의를 다해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 흡사 고사리손처럼 예쁘지 않았겠는가.

광주형 일자리로 명명된 이후 지내온 날들을 생각해 보자.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 것은 필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든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디데이를 두고 GGM의 전 임직원들은 노심초사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고 경영층부터 현장의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행여 사고라도 날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들 또한 첫차가 나오는 그날까지 그들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고사리손의 또 다른 기적을 기원해 본다.

지금 D-100 프로젝트에 돌입한 GGM은 안정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GM은 차량의 조립품질 안정화, 품질생산성 향상, 설비 안정성 확보, 차체조립의 정확도를 기하는 등 종합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기에 든든해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이처럼 중대한 과업이 완수되려면 이를 수행하는 사원들, 바로 사람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생회사인 GGM은 갓 채용한 신입사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나 직원들은 전력투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현장을 가보면 기술 노하우 전수교육, 설비 메이커 1:1 매칭교육, 보전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최근 한국폴리텍 대학에 보내어 집중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들은 어떤가. 대학 관계자 말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학습의욕이 대단해 기술 습득이 아주 빠르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아직은 노련하지 않다 보니 차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안전의식교육을 하고 있단다. 안전환경담당자들은 철저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멀리 현대차 울산공장에까지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뭐래도 품질과 안전은 GGM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도 상생의 정신으로 의기투합해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고사리손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나올 멋진 경차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중장년센터 제2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21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3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중장년센터 제2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주)사랑방미디어 강의실에서 제26회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사랑방미디어 재직자를 대상으로 총 6시간에 걸쳐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8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07.19 ~ 07.23)	
07.19(월) * 전남지노위 조정회의	07.22(목) * 중장년센터 제2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23)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지사회장이·취임식
07.20(화) * 산업안전공단 재정지원 심사	
07.21(화) * 중장년센터 제2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07.23(금) * 제1527회 금요조찬포럼

## 1. 노사 동향

#### ■ 고용부는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

○ 고용부는 7. 19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 14)’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매달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점검

-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은 자율점검표 배부 및 시정 요구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조치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은 산업안전 보건감독과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

※ 금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약 3,500여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의 안전조치에 대해 실시

○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차후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은 7. 28 진행 예정이며 8월부터 이뤄지는 점검 부터는 불시에 시행할 계획

## 2. 법제 동향

#### ■ 최승재 의원(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14)

- (발의 이유)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 발생
  - 현행법상 일·주·월 등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산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휴시간을 해당 임금환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액의 시급환산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고용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주요 내용)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변경

#### ■ 윤미향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1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시점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고용을 재개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우선재고용 내용·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근로자가 많아 이를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재고용을 함에 있어 국적, 신앙,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며, 우선재고용의 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하며,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